



LG텔레콤

가입자증가에 따른 망증설 박차

LG텔레콤 정장호 부회장은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지역 확대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광중계망 및 소형중계기 설치 그리고 가입자의 통화량 증대에 대비한 기지국 장비용량(FA) 증설 및 추가 설치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LG텔레콤은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통화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및 광역시의 통화량이 높은 지역에 긴급히 40여개의 기지국을 추가 설치키로 했으며, 대도시와 광역권의 기지국은 전량 3FA로, 기존 1FA는 2FA로 증설하는 등 전국 480여개의 기지국 용량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LG텔레콤은 지난 3월초부터 광중계망(L'COTA : LG CD MA Optic Transmission Antenna)의 본격설치에 들어가 현재 90

여개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일정을 앞당겨 매일 10개이상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019PCS의 통화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소형중계기를 현재 200여개가 설치된 상태로 매일 20여개씩 추가 설치중이다.

삼성SDS

대구공항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사업권 수주 확정

한반도 영광을 책임지는 대구공항의 「신항공교통관제시스템(ACC) 도입 및 설치」 구축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삼성SDS(대표 남궁석)는 대구항공교통관제소가 발주한 「신항공교통관제시스템(ACC)」 구축사업을 3백12억원에 최종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ACC 수주를 둘러싸고 빚었던 발주, 수주 업체간 환율보전문제와 현대정보기술 등 경쟁업체와의 잡음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 대구공항 ACC 수주는 공공 시스템통합(SI)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합리적인 환율연동제를 적용해 프로젝트의 부실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CC는 현재 운영중인 항공교통 관제시설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와 2000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항공교통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제고와 양질의 항공교통 정보제공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항공교통관제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축기간은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정시성 확보를 실현해 신뢰성있는 항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론 선진국의 우수기술을 조기 이전받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의 김흥기 전무는 「ACC 도입 및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도입과 국내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ACC 구축분야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기술협력사로 선택, 조기에 기술이전을 받아 완벽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

“통신영업본부” 발족

현대전자(대표 김영환)가 통신 부문 확대를 위한 구조조정의 첫 번째 작업으로 국내외로 나누어져 있던 이동통신관련 영업조직을 통폐합했다.

현대전자는 지난 3월달부터 추진해왔던 통신부문(부문장 박항구)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분야의 국내외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통신영업본부를 발족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박항구 부사장이 이끌고 있는 통신부문은 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사업본부, 단말기생산을 전담하는 이동통신단말기사업본부 및 정보통신연구소로 재편됐다.

현대전자는 이달말까지는 별정통신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본부와 위성체 제작 등을 담당하던 위성사업단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족된 통신영업본부(본부장 최하경전무)는 시스템 및 단말기를 포함한 기존 이동통신장비의 수출업무를 전담하던 통신해외사업부를 확대하고 국내내수시장을 전담하던 통신사업본부내 이동통신시스템 조직과 국내영업본부내 이동통신단말기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조직을 흡수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영업본부는 디지털 셀룰러폰과 개인휴대통신(PC S),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D TRS)과 관련된 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해 국내외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현대전자는 「이번 통신영업본부의 출범으로 관련 사업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조직과의 유기적 업무연계를 통해 국내외 통신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ISDN D채널 이용 데이터 제공 7월부터 시범서비스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신호채널인 D채널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제공된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디지털은 D채널을 이용한 서비스 활성화를 겨냥,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통신은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게시해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초부터 ISDN의 D채널을 이용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은 16kbps급 속도를 제공하는 신호채널인 D채널을 통해 전자우편, 신용카드 조회,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은행의 온라인 백업망 등 그동안 전용망에 의존하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한국통신은 국내에서 D채널의 전송속도가 16kbps(BRI, 기본군 접속서비스)이나 64kbps급(PRI, 일차군 접속서비스) 정도에 그치지만 이를 데이터서비스 용도로 상용화하면 기존 전용망 이용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SW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ISDN 장비업체인 디지털도 최근 D채널을 이용한 TA(Terminal Adapter) 시제품을 개발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상용제품을 출시키로 했다. 이번에 디지털이 개발한 TA는 망중단장치(NT)와 PC, 전화기, 팩스 등 주변장치와 연동해 단축다이얼, 내선 전송, 통신요금, 통화중 착신알람 등의 부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슈퍼네트, 동양텔레콤, 아이에티텔레콤 등 대부분의 ISDN 장비업체들도 D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ISDN용 TA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D채널을 이용한 데이터서비스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ISDN의 D채널을 전용회선의 10%도 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통신 선진국에서는 ISDN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두루넷

초고속 멀티서비스 전담

기술연구소 설립

두루넷(대표 김종길)은 최근 전용회선 서비스와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의 전담연구를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두루넷은 이번 기술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7월 상용화를 맞은 레인보우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두루넷 기술연구소는 김도진 부사장을 연구소장으로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콘텐츠부문에 57명을 배치했으며 이는 두루넷 전체직원 2백50명의 25%에 상당하는 인원이 다.

두루넷은 기술연구소를 통해 전용회선에 대한 전송망과 장비연구, 레인보우서비스 개발연구, 신규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업무, 레인보우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데이터센터에 대한 연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SK 텔레콤

국제전화사업 “윙크”

SK텔레콤(대표 서정욱)이 오는 6월 국제전화 시장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자회사인 「SK텔링크」의 대표이사 선임, 해외 제휴선 물색 등 전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자본금 40억원에 직원 20명 규모로 설립한 별정통신 전담 자회사 「SK텔링크」의 대표이사로 기획조정실장은 표문수 전무를 선임하고 국제전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지난 4월말 정보통신부로부터 별정통신 제1호 및 2호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미국 AT&T와 회선사용 관련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현재 사업전반을 공유할 제휴선을 물색하고 있다.

국제전화사업을 겨냥한 망 사용 및 서비스 관련 제휴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기간통신사업자인 AT&T BCI 가운데 한 업체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제전화서비스 시작 시점을 오는 6월로 계획하고 있는 SK텔레콤은 6월에는 법인 및 이동전화 가입자들에 한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7월부터 일반 가입자들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링크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식별번호만으로 전화가 가능토록 하며 7월부터는 국제전화 선불카드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링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된 표문수 전무는 53년 수원생으로 지난 94년부터 SK텔레콤에 재직, 기획이사와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기획조

정실장과 사장실장을 겸임해왔다.

한솔텔레콤

사업구조 개편

한솔텔레콤(대표 김근부)은 올해 기존 시스템통합(SI)사업, 인터넷사업, 컴퓨터통신통합(CTI)사업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은 국제전화사업 및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주내용으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솔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솔월드폰(주)을 설립하고 미국 통신서비스업체와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품질 및 가격면에서 기존 국제전화사업자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올해 매출액 60억원, 99년에는 2백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중인데 전자우편, 전자결제, 인터넷 우편, 팩스, 경영정보시스템 등과 통합운영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시스템 「HanQ 오피스」를 주력제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기존사업중 삼성할부금융 프로젝트를 비롯해 H은행, K통신, S생명 등과의 잇따른 수주가 예상되는 CTI사업부문에 영업력을 집중해 당초 매출목표보다 40% 높은 80억원을 올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솔텔레콤은 기존 사업부문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위에 신규사업의 적극 진출을 통해 98년 매출액 7백10억원, 순이익 27억원을 달성해 자기자본비율 70% 이상의 안정된 재무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정보기술

신비로, 유즈넷 검색서비스 제공
현대정보기술(대표 김택호)의 인터넷서비스 신비로가 유즈넷 뉴스검색 서비스인 「뉴스원」을 지난 5월 12일부터 제공했다.

유즈넷은 웹이 선보이기 이전에 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발된 뉴스정보 서비스다.

현대정보기술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유즈넷 뉴스그룹을 검색, 등록하는 것은 물론 구독, 회신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자체개발했으며 이를 신비로의

검색엔진과 연동시켰다.

개인이용자는 PC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신비로의 홈페이지(<http://newsonline.shinbiro.com>)로 접속한 후 3만여 토론그룹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즈넷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정보기술은 사용자가 특정 뉴스그룹을 등록해 놓으면 기사가 개인메일 형태로 자동저장되는 주문형 검색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LG정보

특약점 모니터링제 도입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은 최근 일선 영업현장에서 좀더 정확한 소비자들의 구매실태 및 관련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특약점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특약점 모니터링 체제는 최근 선발돼 출범식을 가진 특약점모니터 요원을 활용, 제품구입실태조사, 자사제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 광범위한 정보 채널을 구축하고 이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상품 기획과 마케팅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체제이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서울 본사 및 5개 대도시 영업소 별로 구성돼 발족됐는데 정기 설문조사와 정기모임 등을 통해 대도시 영업소 별로 구성돼 발족됐는데 정기 설문조사와 정기모임 동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취합, 분석해 정확한 시장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LG정보통신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고객모니터링제도를 특약점 모니터링제도와 병행운영해 PCS 및 디지털 휴대전화 등 휴대 단말기 사업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독자설문안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월간 「정보화사회」는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창간 이후 10여년 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금번 5·6월호 “애독자카드”에 의해 독자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좋은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애독자카드를 기재하신후 절취하시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